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9월 11일(금)
--(음력 7월 24일)--
Пятница
11 сентября 2020г.
№ 36 (11690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9월9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옥차브리>영화관에서 <사할린에서 스파스카야 바쉬냐>군악단 축제가 개막되었다. 이날 러시아 연방 국방부 중앙군악대(모스크바)가 연주했다. (사진: 사흐콤 통신사)

단신

'사할린에서 스파스카야 바쉬냐' 페스티벌 개최

9월 9일(수) 사할린 주에서 '스파스카야 바쉬냐' 군사오케스트라축제가 막을 열었다. 축제 행사에는 러시아의 7개 군악대가 참가하는데 그중 러시아 연방 국방부 중앙 군악대(모스크바), 할릴로브 중장 군악전문학교의 모스크바 생도 오케스트라, 시베리아군사 지구 노보시비르스크 러시아 연방 방위군 군악대(노보시비르스크), 동부 군사지구 러시아 연방 방위군 군악대(하바로브스크), 동부 군사지구 제 29연합군 제101여단 룬드스트렘 군악대(치타), 유즈노사할린스크 군악대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4일간 공연을 펼치며 사할린주 10개 구역에서도 공연할 예정이다.

축제 폐막은 9월13일 19시 가가린 문화와 휴식공원의 '코스모스' 운동장에서 열린다. 이에 이번 축제에 참가했던 모든 군악대들이 공연을 펼친다.

이 행사의 특별 손님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콩코드 오케스트라의 악단이 초대되었다.

이 악단은 세계 유일의 춤추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이다.

발레리 리마렌코, 한해 업무에 대해 보고할 것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1년간 사업 보고를 할 예정이다.

사업 보고는 주지사의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15일 10시 방송이 시작된다.

2019년 9월 8일 사할린 주지사 선거에서 발레리 리마렌코의 승리 후 주지사직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대담에 주두마의원, 사회단체 대표들과 주민들이 초청된다.

위탈리 구진, 사할린주 정부 대표 총괄직에서 떠난다

9월 18일부터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의 전환과 관련하여 비탈리 구진이 러시아 연방 정부 소속 사할린주 대표 총괄직에서 떠난다.

모스크바에서 임시 사할린주 대표 총괄직 대행에 아르세니 드라흘로브가 임명되었다.

사할린주, 코로나19 상황

9월 9일(수) 사할린주에는 코로나19 49명이 확진되었고 35명은 완치되었다.

이렇게 하여 9월 9일 현재 코로나 총 확진자 4892명, 3168명은 회복하여 퇴원, 1724명은 치료 중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현재 마카로브, 아니와, 돌린스크에서는 한 학교에서 한 반씩, 유즈노사할린스크 두 학교에서 한 반씩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고 전해졌다.

주지사, 동력자원부 장관을 만나

러시아 연방 동력자원부가 사할린주의 가스엔진연료 시장 개발을 지원한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알렉산드르 노바크 러시아 연방 동력자원부 장관과 실무회담을 가진 가운데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 정부 총리의 극동 순방 결과로 지시 이행이 논의되었다고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내 동력자원산업개발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 전력 공급과 가스화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주지사는 오하 노글리키 지역의 기업들과 주민들에게 바람직한 가스 공급에 주의를 기울였다.

회담 결과 주요 사안에 따라 동력자원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극동개발에 따른 정부위원회 회의에서 총리는 사할린의 가스화 문제 해결 가속화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지지했다. 모든 면에서 경제 발전과 주민들의 질적인 삶이 이에 달려있다. 더구나 사할린주는 특별프로그램 목록에 들어 있어 가스 연료 시장 개발을 우선적으로 실현할 전망이다. 러시아 동력자원부가 지원하는 가운데 청정연료로의 전환은 대기오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암을 포함한 질병 유행을 줄여줄 것이다."라고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사할린주, 제 30회 '올해의 교사' 경연 개최

올해는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2명의 교사가 경연에 참가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생물, 화학, 역사와 사회상식, 영어, 수학 및 언어교정, 심리학의 교사들이다. 교사 경력은 3년- 25년 까지로 다양하다. 9월7일 유즈노사할린스크 '모지나' 문화센터에서 경연 개막식이 열렸다. 콘서트와 열리고 와중에 참가자들에게 경연 대상인 크리스탈 펠리칸이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에게 블라디미르 유슈크 주 정부 부수상과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 주 교육부 장관이 환영했다. 올해는 경연의 영역이 증가했다.

올해 처음으로 특수교육학과 아동 심리학 교사들 중에서 우수 교사를 선정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참가 교사 대부분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보육교사라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실전 단계에서 교사들 앞에서 활동교실을 진행하고 정식 강의를 하며 교육부장관과 면담에 참가했다. 이외에도 교육학과 특수아동학 전문 경연의 일환으로 공개수업과 과외 활동을 조직했다.

유치원의 교사들은 학과 수업을 진행했고 오락활동을 선보였다. 심리교육 교사들은 특별 도전게임을 진행하고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참가자들은 자기 소개서를 제출했다.

전통적으로 참가자들을 4개의 심사위원단이 평가한다. : 최우수상 수상자와 우수자를 뽑은 주요 심사단, 학과목별 심사단, 비공식 심사단, 학생 심사단이다.

주요심사위원으로는 사할린 교육부 전문가들, 주두마 의원, 교육 근로자 조합 대표, 사할린 교육품질평가센터, 사할린 국립대와 사할린주교육진흥원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과목 평가 심사위원은 과목별 교사, 지난해 경연의 우승자와 최우수상 수상자이고, 비공식심사위원은 <2019년 올해의 교사> 우승자와 최우수상 수상자이다.

학생 심사위원은 올림피아드와 각종 경연, 학업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고학년생들로 구성되었다.

<올해의 교사>경연은 주 교육부가 지역 교육품질평가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사할린-1' 국제 컨소시엄과 '엑손 석유가스유한회사'는 장기간 교사 경연의 주요 협력자다.

4개 부문에서의 압도적 우승자는 전 러시아 특별 전문성 경연 결승에 진출하게 된다. 수상자는 9월11일(금)에 발표된다.

(주 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새고려신문

2020년 하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7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21년 이후 영주귀국: 문제점은 국적 문제 등

지난 주에 한국 안산 고향마을에서 한국 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 대표들이 여러 곳 사할린 영주귀국자 대표들과 만나 2020년도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우선 2019년 사업실적(일시 모국방문, 영주귀국, 귀국지역방문, 2-3세 모국방문) 보고가 있었고 2020년도 사업계획과 사업 진행 현황을 소개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2주간 격리를 해야 하며 러시아 여러 곳 항공 운항이 아직 중단되어 잘 재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0년 모국 방문 또는 영주귀국 사업이 내년 3월까지 연기하여 실시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가장 많이 논의가 된 것은 <2021년도 이후 영주귀국 안내>였다. 올해 4월 말에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은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영주귀국 절차는 이 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인데 적십자사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는 사할린주 한인협회에서 특별법의 시행령에 청하는 사항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간담회에서 특히 국적과 관련 사항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현재 한국 적십자사는 국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중에서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 영주귀국 희망자 조사하는 중이다. 조사서에는 희망자 및 배우자 이름, 성별, 영주귀국자와 관계, 국적, 거주지, 영주귀국 희망 년도를 적어야 한다.

아래에 간담회에서 밝힌 영주귀국 사업 안내를 소개한다. (본사 편집부)

2021년도 이후 영주귀국 안내

1. 관련근거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
 - 주요내용 :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2. 지원대상

2020년도 이전	2021년도 이후
사할린동포와 그 배우자, 장애인 자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 가족

※ 사할린동포: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

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

※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직계로 내려가는 혈족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

3. 지원내용 -> 현재와 동일 수준

- ①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원
- ② 국민임대주택 제공,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선수금 지원
- ③ 특별생계비 지원
- ④ 복지급여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의한 급여 지원
 - 사할린동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종류별 수급자로 결정되어 해당 급여 지원
 - 동반가족: 입국 후 국적취득 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종류별 수급자로서 해당 급여를 지원받으며 국적 취득에 필요한 한국 거주요건을 고려하여 최대 3년 범위 내 보장. 다만, 3년 경과 후 근로능력자(만 64세 이하)인 경우,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조건부 수급자로 자격 변경
 - 기초 연금법에 의한 기초 연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지급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지원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 수급권자 최초 선정일로부터 3년간은 의료급여 1종 부여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지원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귀국하여 국적취득과 주민등록 발급 후 의료기관에서 판정받은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 다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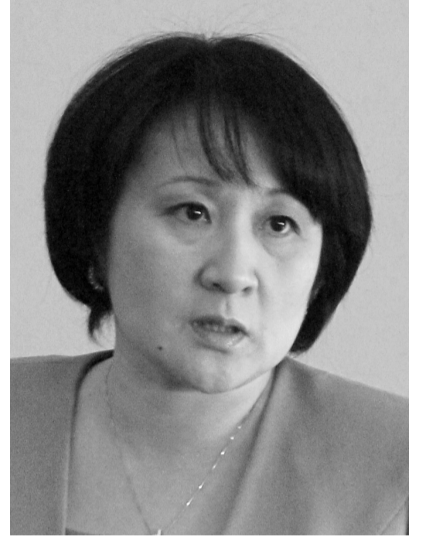
4. 국적 관련 사항

- 국적법 제 1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복수국적 허용 불가
- 다만,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

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한 경우는 예외임 -> 복수국적 허용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의 코멘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영주귀국 안내서를 받고 사실 많이 실망했습니다. 너무 섭섭합니다. 우리가 보낸 청원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의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주귀국한 어르신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청원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첫째, 동 법의 영주귀국 당사자가 되는 제2조 제1항의 '사할린동포'를 현재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해야 하며, 제2조 제2항의 '동반가족'의 범위를 1항의 당사자와 반드시 '동반'하는 개념으로 제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주귀국자가(만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러시아 등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사항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제3조 제2항의 '피해구제'에 잃어버린 국적 선택권을 이제라도 부여해야 생각합니다. 잔류 1세에게는 영주귀국 및 국내 주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적 판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적회복 대상이 되는 2세에게도 외국인등록 및 국내 주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외공관에서 국적업무 및 관련 민원업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감사와 청원의 글)은 본지 2020년 6월 26일호 게재.)

이와 관련 내용을 9월 12일(토) 소집될 주한인협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주민들, '러시아 연방 경주' 하프마라톤에 참가

'러시아 연방 경주' 전 러시아 하프마라톤대회가 종료되었다. 하프마라톤대회는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사할린 주민들 약 450명이 온라인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사할린에서 전 러시아 공식 체육행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거주지에서 경주가 열렸다. 경주 참가자들은 지정된 기간 내에 어느 도시에서든 장소와 시간, 코스를 선택해 달렸다. 마라토너들은 1520미터, 5천 미터, 1만 미터, 2만1천 미터 종목에서 달려 프로그램 추적기와 스포츠 시계를 이용해 독자적으로 결과를 기록했다.

사할린주에서는 마라톤에 6세부터 참가가 가능했는데 미로스코와 비코와(6세)가 가장 어린 참가자로 1520미터 종목에서 승리를 향해 달렸다.

최고령 참가자는 사할린 스포츠 행사 고정 참가자인 타우레니스 윌리스(68세)가 1520미터 종목에서 완주했다.

매해 전 러시아인들이 하프마라톤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첫 하프마라톤대회가 열려 10개 도시에서 참가자들이 모였고 2018년에는 15개 도시에서 동시에 대회가 열렸으며 2019년에는 19개 도시에서 열렸다. 올해는 85개 도시에서 이 대회에 참가했다.

사할린의 육상대회는 사할린 스포츠센터와 콤파츠키 하계 스포츠 종목 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러시아 연방 경주'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메달과 행사 상장의 기념품을 수여했다고 사할린주 체육부 홍보실이 전했다.

Сахалинцы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полумарафоне "ЗаБег.рф"

Завершился всероссийский полумарафон "ЗаБег.рф". Порядка 450 островитян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состязании онлайн. Полумарафон длился со 2 по 31 августа.

Всероссийское официальное физкультур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на Сахалине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по месту пребывания участников забега. Каждый спортсмен мог преодолеть выбранную дистанцию в любом городе, месте и в любое время, в рамках указанных сроков. Спортсмены бежали 1520, 5000, 10 000 и 21 100 метров. Участники фиксировали результаты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ри помощи спортивных часов или программы-трекер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могли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возрасте от 6 лет. Так, самым юным участником стала 6-летняя Мирослава Быкова, начинающая спортсменка боролась за победу на дистанции 1520 м. Самым старшим марафонцем стал постоянный участник островных физ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68-летний Тауренис Виллис, он также преодолел 1520 м.

Ежегодно к полумарафону присоединяется все больше россиян. В 2017 году первый подобный полумарафон собрал участников из 10 городов страны. В 2018 году одновременный старт состоялся в 15 городах, в 2019 году — в 19. А в этом году в забеге участвовали 85 городов.

Организаторы забега на Сахалине —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совместно с СШ лет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имени Комнацкого — вручили участникам полумарафона "ЗаБег.РФ" медали и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с символикой мероприяти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30년간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 간 무역 및 상호 관광 교류 25배 증가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수교 이후 30년간 무역과 상호 관광 교류가 25배 증가했다고 대한민국 국제무역협회가 이런 보고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1990년에는 양국 간 교역액이 8억8천880만 달러였고 지난해에는 223억 4064만 달러에 달했다. 30년 전에는 양국 간 관광교류가 3만 명 정도 였는데 지난해에는 77만 명으로 증

가했다. 양국 간의 이러한 증가는 2014년도에 도입된 무비자 정책으로 촉진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시장에 대한민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로 한국 브랜드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휴대전화 판매량에서 1위를 차지했고 현대 자동차그룹의 자동차 판매량과 엘지(LG) 생활 전자용품은 2위를 차지했다.

전망상 러시아는 극동지역 및 시베리아 개발에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한국은 에너지 자원 확보와 유라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희망하고 있어 상호간 이해관계가 맞다.

'가스관 설치로 에너지와 물류 분야 및 전력망 구축, 철도 연결 조직 등 이런 기획이 실현된다면 상호이익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한국 국제무역협회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За 30 лет товарооборот и взаимный турпоток между РК и РФ возросли в 25 раз

За 30 лет, прошедшие посл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К и Россией, товарооборот и взаимный турпоток возросли в 25 раз.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отчете,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в понедельник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и.

Если в 1990 году объем двусторонней торговли составлял 888 млн 800 тыс. долларов, т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 22 млрд 340 млн 640 тыс. долларов. Если 30 лет назад объем двустороннего турпотока составлял 30 тыс. человек, т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н достиг 770 тыс. человек. По сообщению ассоциации, резкому росту двустороннего турпотока способствовал введенный в начале 2014 года безвизовый режим. В отчете также говорится, что активный выход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повышает доверие местных потребителей к южнокорейским брендам.

(8면에 계속)

<하늘>팀, 최고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연장된 전국<2020 러시아 대학생의 봄>경연 축제가 9월 5일부터 10일까지 로스토브-나-도누 시에서 펼쳐졌다. 이에 축제 지역 단계 수상자 등 2000여 명이 9개 부문(댄스, 음악, 언론 등)에 참가하였다. 사할린주를 대표한 30여 명의 청년들 중에 <하늘>사물놀이팀(단장 송천석)이 있다. 하늘팀은 2가지 부문에서 훌륭한 무대를 보여주며 독특한 장르(북공연과 춤과 쇼) 부문에서는 1등, 악기 부문(민속악기, 모듬북 공연)에서는 대상을 따냈다. 송천석 단장에 따르면 상대 참가자 수준도 높았고, 수상할 만한 상대가 꽤 많아 우승할지에 대한 염려도 했으나 우리 손에 우승이 쥐어졌다. 그래서 이번 우승은 더욱 소중하다.

(본사 기자)
(사진: <하늘>팀 제공)



사할린한국교육원, 개강

9월 1일 러시아에서 신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이병일)도 9월 7일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교육원에서는 한국어 입문반, 기초반부터 시작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에 맞춘 한국어 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외 한국요리교실, 한국문화주부반이 계속 운영되고 있고 올해 새로 생긴 반은 <한국어와 함께하는 세계의 민속춤>이다.



수업 시간은 매주 2시간이다. 한국어 강사는 사할린국립대 한국어 교수, 학교 한국어 교사 등이다. 이병일 원장에 따르면 이번 학기에 210명 정도 교육원에서 교육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

코로나19 확산 위험 때문에 현재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키고 있고 의무적으로 체온 측정도 하고 소독제도 준비돼 있다. 사할린한국교육원도 예외가 아니다. 수강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보일 경우 교육은 원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사할린한국교육원은 1993년 12월 10일 개원했고 동포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통해 우리의 얼과 문화 등을 올바르게 심어주도록 하며, 나아가 러시아인들에게는 한글을 널리 알리는 노력하고 있다. 교육원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설립한 기관으로 러시아 사할린과 캄차트가 지역의 재외동포와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문화 교육을 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유즈노사할린스크, 138주년을 맞이

올해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138주년을 맞는다. 시의 날은 전통적으로 9월 둘째 토요일에 기념하고 있는데 올해는 며칠에 걸쳐 축제 행사를 진행한다.

9월10일(목) 17시에는 아동미술학교 전시관에서 도시의 날을 기념해 흐루스토브 화가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9월11일(금)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명예시민 시상식과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빛낸 사람들과 시가 선정한 수상자 시상식이 열린다.

도시의 날은 9월12일(토)로 가까이 문화 및 휴식공원이 주요 행사장으로 낮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진행된다. '코스모스' 경기장에서는 10시에 시민 1200여 명(20개 이상 단체, 교육 및 문화기관과 예술협회, 댄스 스튜디오)이 참가하는 대규모 의상 행진이 열리는 가운데 행진 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이 미스터 명절에게 도시 상장의 열쇠를 전달한다.

11시부터 공원에서 흥미로운 행사들이 펼쳐진다. 댄스장에서는 오케스트라 콘서트가 열리며 '코스모스' 경기장 무대에는 2시간 동안 '무지개' 문화회관의 콘서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와 병행하여 광장에서는 스포츠 경기가 열린다.

베르흐네예 호숫가에서는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가 콘서트를 열고 올해 25주년을 맞는 이 학교의 한민족 학과가 11시부터 2시간 공연을 펼친다.

저녁 프로그램은 승리광장에서 열린데 '아가타 크리스티'그룹의 가수 바짐 사모일로브가 오후 6시에 콘서트를 열고 이후 닐레토(다닐 세르게예비치 프리트코브 힙합가수)가 무대에 나서며, 27명으로 구성된 콩코드 오케스트라가 축하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레오니도워 한인 피살자 추념비 참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 남부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 75주년을 맞아 지난 9월 5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안영수 노인회장을 비롯한 4명의 회원들이 포로나이스크구역 레오니도워 한인 피살자 추념비(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약 300km) 현장을 찾아 참배했다.

1945년 8월 일본인들은 퇴각 전 불을 질러 레오니도워 (당시 카미시카) 경찰서에 갇힌 한인 18명을 산채로 태우는 잔인함을 보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활동가들은 이날 추념비를 깨끗이 닦고 제사상을 차렸다.

우리는 사할린 한인들의 비극적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사할린주, 독감 예방접종 시작

지난주 사할린 지역에서 15만4천437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올해 성인용 첫 독감 백신 계열을 받았다. 백신을 사할린과 쿠릴 의료기관에 배급한 가운데 올해 30만(사할린 전체 인구의 60%) 사할린 주민들에게 접종할 계획이다. 우선 독감 감염에 취약한 범주에 있는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접종 대상은 아동 6개월부터 17세까지, 임신 2-3개월의 임산부(75%), 의료 및 교육 기관 종사자 (90%), 만성질환 환자(75%)이다. 사할린주 주민들의 접종은 주내 모든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형 쇼핑센터와 기업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직장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

"국내 생산 백신은 10년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약품 적용과 관련한 부작용의 보고가 없다. 앞으로 아동들에게도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라고 사할린주 보건부의약품부 부장 텐 밀라가 밝혔다.

의약품부는 독감 백신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바람직한 대책임을 밝혔다.

독감 예방접종은 독감 발병률을 낮추고 환자들이 고통을 줄이는데 질환의 장기화와 심각성을 비롯한 치명성과 중증으로의 발전 위험을 줄여준다.

독감 백신 접종 후에 2주간 항체가 형성돼 1년간 지속된다.

독감 예방접종 캠페인은 9월 4일부터 시작했다고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먹이를 주지 마시오

동물원에 종종 가지만 눈길인 안가는 곳이 있다. 첫째는 조류관인데 어릴 때 새를 많이 키워 부리 달린 동물에 질린 탓이다. 두 번째는 원숭이관인데 나이를 먹어도 원숭이는 무섭다. 놀리고 장난치는 건 생각도 못한다.



원숭이 우리 앞에는 '먹을 것을 주지 마시오.'란 팻말이 붙어 있다. 담배꽂초나 비닐봉지처럼 해로운 물건은 당연히 안 되고 과자나 사탕은 먹을 수 있지만 건강에 좋지 않으니 금지다.

옛날에 집 가까운 동물원에는 코가 잘린 코끼리가 있었다. 멀리 떨어진 과자를 훔쳐서 자기 쪽으로 날아오게 한 다음 빨아올리는 재주가 있었다. 가끔 구경꾼들이 코끼리의 콧물을 맞을 때가 있어서 조심해야 했다.

원숭이들은 더 똑똑했다. 어른들이 담배꽂초를 던져 주면 피우는 원숭이도 있었다. 아이들이 지나갈 때면 우리 밖으로 손을 내밀고 과자를 달라고 난리법석이었다.

한 번은 작은 원숭이를 놀려주려고 과자를 줄 듯 말 듯 약을 올렸다. 원숭이의 헛손질이 재미있어 몇 번이나 그랬다. 다른 원숭이들은 옆에서 과자를 먹는데 자기만 못 먹으니 원숭이가 화를 냈다. 그게 더 웃겼다.

원숭이를 놀려주다가 우리 앞에 떨어진 과자 봉지를 주우려고 울타리 안으로 넘어갔다. 봉지를 주위 일어서는데 원숭이가 내 머리칼을 잡고 소리를 질러댔다. 아프고 기분도 나빠서 빨리 놓으라고 으름장을 냈는데 역효과가 났다. 다른 원숭이들마저 몰려와 내 머리칼을 잡고 흔드는 것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고 겁이 덜컥 났다. 이러다가 머리칼이 죄 뽀뽀할 것만 같았다.

비명을 질렀더니 사육사 아저씨가 달려왔다. 겨우 풀려난 나는 엉엉 울면서 엄마를 찾아갔고 승리한 원숭이들은 신이 나서 우리 안을 뛰어다녔다.

그 뒤로는 동물원에 가도 원숭이 우리를 피해 다녔다. 원숭이가 나를 알아볼 것 같아서였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걸 깨달은 건 다른 동물원에서 고릴라를 보고 난 뒤였다. 고릴라를 놀리다가 그 꼴을 당했다고 상상해 보면 등이 오싹하다.

동물원의 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된다. 약 올리는 건 더더욱 안 된다.

광주에서 김남중

사할린주에 100여 채의 붕괴 또는 소유주 부재의 건물들 철거

사할린주에서 100여 채의 붕괴 또는 소유주 부재의 건물들을 철거할 계획이다. 당면 철거사업에 대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주 정부 회의에서 논의됐다.

주 주택공공사업부는 105개의 철거 대상을 선정했다. 이 중 절반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있으며 건물들은 5개 영역 - 연방 소속 시설물, 지방 소속 시설물, 개인 소유, 소유주 없는 건물, 아직 소유주가 없는 건물 - 로 구분됐다. 해당 철거작업에는 2억9천만 루블리가 소요될 전망이다. '품격 있는 주거환경 확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목적이 불분명한 소유주 불명의 시설 및 폐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주내 불법 쓰레기 매립지 정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쓰레기 수거작업이 100곳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중 78곳은 언덕과 계곡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불법 쓰레기 매립지는 주로 돌린스크, 아니와, 오하지역에서 발견되었다.

회의에서는 일련의 황당한 쓰레기 매립지가 다시 생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이런 사실을 시급히 처리하길 요청했다. 주 생태환경부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각 사실에 따른 규정을 작성해 불이행의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련한 행정처분 자료 200여 건 이상이 작성돼 총 과태료는 30만 루블리를 넘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нигу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 япон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презентовали в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Книгу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 япон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XX-XXI веков" презентовали в СахОУНБ 9 сентября. Авторы издания — профессор СахГУ, доктор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и лингвист Александра Никонова.

Монография выпущена по программе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ой краевед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которую ежегодно финансирует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работы для публикации издания провел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библиотека.

— Замечательно, что у нас есть такие авторы. Я сегодня хотела бы отметить не только это издание, полную монографию, но и больш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Елены Иконниковой, которая очень многое делает для того, чтобы русские больше узнавали о японских писателях, а японцы — о нашей литературе. Хочу поздравить с выходом новой книги и отметить, что Еле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 не просто наш единомышленник, мы считаем ее внештатным сотрудником библиотеки,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СахОУНБ Валентина Малышева.

Нынешнее издание монографии — уже второе, расширенная и дополненная версия книги, вышедшей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В ней представлены обзоры произведений, факты из жизни японских поэтов и писателей, обращавшихся в своем творчестве к тем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Это Харуки Мураками, Исигава Такубоку, Кандзава Тосико, Со Куракава и другие. Издание будет интересно как широкому кругу читателей, так и специалистам — краеведам, филологам.

— Мой интерес к краевед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обусловлен двумя факторами. Первый — знакомство с докторами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Михаилом Станиславовичем Высоковым и Александром Ивановичем Костановым. Значимая часть наследия этих ученых связана с нашим регионом. Второй фактор связан с тем, что мне предложили читать теорию литературы и историю мировой литературы для студентов, которые изучают восточные языки. Накануне лекций мне приходилось осваивать совершенно новый

пласт имен, событий, фактов, произведений. Так постепенно складывались интересные истории, которые иногда имели даже детективное звучание, — рассказала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Соавтор издания Александра Никонова отметила, что впервые присутствует на презентации книги, соавтором которой она является.

— Событие очень волнительное для меня, и в то же время почетное. Хотела бы сегодня сказать не про книгу — каждый, кому интересна эта тема может сам ее прочесть и составить свое мнение. Хотела бы поговорить о людях, которые стоят за книгой. В жизни каждого из нас бывают судьбоносные встречи. Часто — это наши учителя, которые определяют наш дальнейший путь. В моей жизни были две такие встречи: мой первы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японского языка в гимназии № 1 Ольга Юрьевна Башлий и в университете — Еле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Иконникова, которая погрузила меня в мир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раеведения, — отметила Александра Никонова.

Она поблагодарила всех, кто помогал в работе над книгой: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областную библиотеку, типографию, рецензентов — доктор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Наталью Потапову и кандидата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Людмилу Гринько.

— Это не только литература и история — я бы назвала эту книгу артефактом мира. Если вы еще не успели заглянуть под обложку, я вам советую это сделать. Вы увидите, как трепетно и с любовью японские авторы говорят о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 и те, которые здесь были, и те, кто только мечтал здесь побывать, — высказалась о монографии Людмила Гринько.

На презентац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енконсульства Япон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Кадзухиро Куно и вице-консул по культуре



Хидэюки Мацумото. Авторы подарили дипломатам несколько экземпляров книги для консуль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СахОУНБ.

Отметим, что профессор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плотно сотрудничает с газетой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монографии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 япон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XX-XXI веков" она рассказывает также о творчестве японских пис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родившихся и живших на Сахалине, в частности об известном в Японии писателе Ри Кайсее, в чьем творчестве сахалинская тема играет заметную роль. Заметки о Ри Кайсее были опубликованы и в нашей газете.

Монография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 япон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XX-XXI веков" вышла тиражом 300 экземпляров. Книги будут переданы в том числе в фонды островных библиотек. Также издание доступ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на сайте библиотеки.

Русская школа за рубежом: инструмент "Мягкой силы"?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номере №35)

Все эти годы мы не прекращали благодарить судьбу за то, что она привела нас в русскую школу. К сожалению, из-за пандемии посольскую школу временно закрыли для тех, кто не живёт в посольстве, и когда она будет открыта, неизвестно. Школа небольшая, и наладить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всех желающих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ым.

Мы очень надеемся туда вернуться, а пока собираемся обходиться российским онлайн-обучением. Возвращаться в американскую школу дочь отказывается наотрез.

Несколько мыслей вслед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англоязыч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очевидно господствует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и противопоставить ему вроде бы нечего, ибо против лома, то есть 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ВП, нет приёма, ситуация, на самом деле, сложнее. Многие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роживают в странах, где англоязыч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либо недоступно, либо некачественно, а с образованием на местном языке имеется множество проблем.

Южная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таких стран. Образование в местных школах здесь неплохое.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многолетние разговоры о «мультикультурализме», корейская школьная среда остаётся одной из самых закрытых и дискриминационных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Если в начальной школе положение иностранного ребенка ещё терпимо, то начиная класса с пятого иностранные дети начинают подвергаться вытеснению из корейской среды. От этого не спасает ни свободное владение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ни корейская этничность, ни искренняя нацеленность твоей семьи на ассимиляцию, ни приличное матер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Тебя отторгают, как инородное тело.

Для родителей это внезапное социальное отторжение ребенка, который ещё вчера бегал во дворе с корейцами, а сегодня вдруг приходит с синяками и просит вечера дома, играя с собачкой, является шоковым, болезненным открытием. Многие из них пытаются игнорировать проблему, выхода из которой не видят, или искать причины в поведении самого ребенка.

А причин нет. Два чудовищных происшествия последних лет: с полукорейским-полурусским ребенком, которого корейские одноклассники сбросили с 15-го этажа за «некорейскую внешность», и узбекским мальчиком, попавшим в больницу после избития одноклассниками, — показывают, что корейская школа опасна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сто потому, что они иностранцы.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членов русскоязычной общины выходов из этой ситуации нет. Англоязычная школа, ко всем её минусам, ещё и заоблачно недоступна: ежегодная стоимость нашей «третьей по стране» равнялась стоимости хорошего автомобиля. И вот здесь очень может помочь русская школа. Она обладает достоинствами, которые в России пока мало осознают.

Во-первых, российская школа остаётся территорией, свободной от национальной дискриминации. Твоя этническая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здесь никого не интересует. Если ты уважаешь окружающих, готов соблюдать общие правила, не создаёшь национальных банд и не пытаешься навязывать свою религию, тебя примут как своего.

Во-вторых, каче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ую школу принято критиковать за бесконечные реформы и пресловутое ЕГЭ, однако она даёт весьма качественное системное класс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оставаясь наследницей той самой п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из которой когда-то выросли её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и — школы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и СССР.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подоб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сегодня доступно только элите, стоит дорого и есть далеко не везде. В Канберре, где училась наша старшая дочь, та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евоз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 принципе, ни за какие деньги. Надо сказать, что немалую роль в её академических успехах в школьные годы играли те русские учебники, по которым мы с ней дополнительно занимались примерно до шестого класса.

Всё это делает русскую школу мощ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мягкой силы» за рубежом сред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иностранцев.

Чтобы эта «мягкая сила» работала, однако, недостаточно просто оказывать финансовую и лицензионную поддержку частным русским школам за рубежом. В Южной Корее такие школы существуют и не пользуются осо-

б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ри всём энтузиазме и старании, отдель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за границей просто не могут созда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должного уровня, таких, чтобы родители могли доверить им будущее своего ребенка.

Чтобы родители за рубежом могли со спокойной душой отдать ребенка в русскую школу, это должна быть не невнятная частная лавочка, где преподают случайные гастарбайтеры, а качественн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РФ школа при посольствах, консульствах или поддерживаемых государством центров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Работать в ней должны дипломированные педагоги, специалисты, отобранные и командированные из России.

На базе подобных школ можно было бы создавать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курсы, действующие в вечернее время — для тех русскоязычных детей, кто ходит в местные школы, однако хотел бы заниматься по российской программе русским языком, физикой, математикой или историей. Если бы подоб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существовала в Канберре, когда там училась наша старшая дочь, мы бы ей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Но — увы! — вместо этого она ходила учиться во француз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Кроме того, у России за рубежом есть стойкая позитивная репутация в таких областях, как информатика, спортивные танцы, гимнастика, музыка.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ные родители наверняка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бы возможностью поучить своих детей у «настоящей русской пианистки» или «русского программиста».

По эффективности воздействия на человека мало общественных институтов могут сравниться со школой.

Если привлечение на свою сторону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является задачей России, то создание сети качеств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русских школ за рубежом — вернейший шаг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Ребятишки,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спешат к воротам посольства на урок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огда-нибудь поработают на благо России.

ТАТЬЯНА ГАБРУСЕНКО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Южная Корея.
Источник: globalaffairs.ru/articles/russkaya-shkola-myagkaya-sila/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87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П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РК согласован четверты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правящ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договорились выделить четверты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на сумму порядка 7 трлн вон (6 млрд долларов) для поддержки наиболее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пандемии COVID-19.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достигнута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состоявшегося 6 сентября в канцеляри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на этот раз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наиболее уязвимым слоям населения, включая семьи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време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амозанятых и частных торговцев, у которых из-за пандемии резко упали продажи.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четвертог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за счет выпуск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блигаций. Бюджетный законопроект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на этой неделе. Ожидается, что депутаты утвердят его до осеннего праздника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который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в конце сентября-начале октябр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оветует отказаться от семейных встреч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звало граждан в период осеннего праздника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который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в конце сентября-начале октября,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поездок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и отменить традиционные семейные встречи. Как отмечалось на состоявшемся в воскресенье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массовое перемещение и большое скопление людей могут вызва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ируса COVID-19. Отмече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силения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в преддверии и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ка, поскольку в мае и августе, когда у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были выходные дни, были зафиксированы всплески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В этом году выходные дни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продлятся с 30 сентября по 4 октября.

Первое место BTS в Billboard даст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ффект 1,4 млрд долларов

Первое место в чарте Billboard Hot 100, которое заняла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южнокорейская бойз-группа BTS, даст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ффект в размере 1 трлн 700 млрд вон (1 млрд 400 млн доллар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7 сентяб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о достижение принесёт 1 трлн 230 млрд вон (1 млрд 354 млн долларов) 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м секторе и 480 млрд вон (404 млн долларов) добавленной стоимости. Может быть создано до 8 тыс.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Показатели определены с учётом совокупных доходов агентства Big Hit Entertainment, представляющего группу, данных тамож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Банка Кореи и Google Trend.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подсчётам, Big Hit Entertainment заработает 245 млрд 700 млн вон (206 млн долларов) от мировых продаж сингла Dynamite. Экспорт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товаров, связанных с дебютом Dynamite, составит 371 млрд 700 млн вон (312 млн 800 тыс. долларов). К числу наименований таких товаров относятся косметические изделия,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и одежда.

На разработку вакцин против COVID-19 выделено 170 млрд во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ыделит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170 млрд 700 млн вон (143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помощь отечественным компан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 вакцин и лечебных препаратов для борьбы с COVID-19. Как сообщили 4 сентяб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около 27 млн долларов будет потрачено на поиск материалов-кандидатов для потенциальной вакцины, 6 млн долларов – на клинические испытания без участия человека. На испытания вакцин на людях будет потрачено 110 млн долларов. Ещё 120 млн доллар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потратить на развитие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центров, помогающих бороться с инфекционн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Школы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работают в удалённом режиме до 20 сентября

Детские сады, начальные, средние и старшие школы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работают в удалённом режиме до 20 сентябр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это связано с реш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одлить режим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уровня 2.5. Ограничение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которые готовятся к едином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у экзамену, – уточн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Школы в остальны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ать в режиме, сочетающем очное и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При этом в классах начальных и средних школ могут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ходиться не более одной трети списочного состава учащихся, а для старших школ данное ограничение составляет две трети.

(RKI)

Памятную доску установил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честь 120-летия кафедры корейской словесности

Памятную доску установили в честь 120-летия открытия первой в мире кафедры корейской словесности в Восточном институт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4 сентября присутствовал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господин О Сунг Хван, сообщает ИА PrimaMedia.

Кафедра корейской словесности была открыта в Восточном институте ДВФУ в 1900 году. Интерес в изучении этой страны растёт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 ДВФУ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ак основной изучает 190 человек, а по обменным программам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уезжает обучаться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тудентов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о 8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ловина от этого количества приходится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а проректор ДВФУ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тношениям Виктория Панова. Она сообщила,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празднуется 30-лети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Сегодня волнительный день. Мы присутствуем при знаменательном событии. ДВФУ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 пионером в изучении нашего доброго друга и соседа –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ее культуры и языка. Открытием этой доски мы признаем тот вклад, который вносит и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в развит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то, что это составляет значительную часть ДВФУ”, – рассказала Виктория Панова.

Почетным гостем на мероприятии стал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господин О Сунг Хван. Он помогал в установке памятной доски 1 сентября.

“Когда кафедру впервые открыли, никто и не мог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корееведение станет таким важным, как сейчас. Мне на ум приходят слова Нила Армстронга: маленький шаг для человека и огромный скачок для страны. Сегодня здесь я даю вам слово прилагать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для разви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России и укрепления дружбы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 сказал господин О Сунг Хван (на фото).

Установку мемориальной таблички назвали новым этапом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оссийскими и корейским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Первый секретарь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горь Лапицкий в своем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сказал, что дипломатия любого уровня невозможна без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о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бласти перевода с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Он пожелал ДВФУ, как приемнику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приложить все усилия, чтобы количество энциклопедистов-переводчиков в нашей стране только возрастало.



Директор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Школ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ДВФУ Евгений Пустовойт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также отмечается год взаим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Уже сейчас кафедра корееведения представлена ведущими учеными-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 авторитетные конференции, все сотрудники проходят глубокие стажировки и прекрасно знают язык. Я уверен, что с каждым годом мы все больше будем развивать гуманитарную связь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а также развивать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которое до сих пор держится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 сказал Евгений Пустовойт.

От имен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 120-летием кафедры поздравил директор Владивосток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Сонг Кё Чунг.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ДВФУ открыл первую в мире кафедру корейской словесности в 1900 году, а так же подготовил множество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бласти корееведения и стал лидером в развитии этой области в России.

Памятную доску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крыли Виктория Панова, Евгений Пустовойт, господин О Сунг Хван и господин Сонг Кё Чунг.

Еще большей торжественности мероприятию придали выступление ансамбля “Хэдон”, представляющего кафедру корееведения ДВФУ.

После фотографирования у мемориальной доски состоялся обмен памятными подарками между генеральным консул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господином О Сунг Хван и проректором ДВФУ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тношениям Викторией Пановой.

Всем гостям мероприятия вручили подарки от корейск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Клуб люб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озобновил работ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возобновил работу клуб люб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На днях состоялось его первое, после трех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заседание.

Участники клуба ознакомились с корейской системой письма Хангиль и начали изучение согласных букв.

Заседания клуба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не только занятия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о и страноведческие лекции, позволяющие бли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ультуро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бор в группу пока не ведется, но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ематической книжной выставкой “Давайте читать корейские книги”. На ней представлены пособия для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ниги об истории, традициях и культуре страны, а также современная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Южной Кореи. Экспозиция работает в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торой этаж СахОУНБ) до конца сентябр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Минэнерго РФ поддержит развитие рынка газомоторного топлива на Сахалин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рабочую встречу с Министром энергетики России Александром Новаком. Обсуждалось исполнение поручений Председателя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ихаила Мишустина по итогам его поездки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ходе встречи речь шла о развитии отраслей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регионе. В частности,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газификации и обеспече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электрической энергией.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губернатор уделил теме надежного газоснабжения жителей и предпрятий Охинского и Ногликского районов. По итогам состоявшегося диалога была получена поддержка со стороны Минэнерго по обозначенным вопросам.

–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добрил наш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ускорению решения вопроса газификации Сахалина. От этого во многом зависит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и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людей,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Не менее важным является и то,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йдет в перечень пилот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где развитие рынка газомоторного топлива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в первоочередном порядке. Министерство энергетики России нас в этом поддерживает. Переход на чистое топливо позволит убрать первоочередную причину загрязнения воздуха и снизить количество спровоцированных состоянием атмосферы заболеваний, в том числе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Отмети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годня действует программа по переводу авто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на газомоторное топливо. На нем уже работает более тысячи автомобил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о конца года должна открыться вторая стационарная заправка для таких машин. В Корсакове нужны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техники закрывает мобильный заправщик. До конца 2020 года число таких передвижных заправщиков планируется увеличить. В трех районах – Невельском, Поронайском и Тымовском – технику приобретут за счет муниципальных средств. Еще ряд комплексов купя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он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по заявкам, закрывая потребности различных районов. До 2025 года в каждом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области намерены открыть и стационарные газозаправочные пункты.

По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на Сахалине планируют построить 6 криогенных заправок, которые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сжиженный природный газ. Станции возведут вдоль дорог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Корсаков, Холмск и Оху.

Вместе с тем в регионе создан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й пакет мер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 который занимается развитием газомотор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а также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использующих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топливо.

Любой владелец автомобиля может переоборудовать автомобиль и получить компенсацию затрат в размере до 150 тысяч рублей. Эта сумма покрывает расходы на переоснащение автомобиля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 С 1 июля в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льгота по бесплатному переводу машин на газомоторное топливо. В первоочередном порядке ее предоставляют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м, многодетным семьям, инвалидам и ряду других льготных категорий островитян.

Финансовая помощь предусмотрена и для бизнеса. Так, юридические лица могут перевести свою технику на газ и получить до 70 процентов потраченных средств на покуп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но не более 1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год.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и организациям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омпенсируют 70-90 процентов затрат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нового авто и установку на него газобалло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мощь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также получают владельцы сервисных центров, предоставляющие услуги по переоснащению машин. Им возвращают затраты на покуп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необходимого для этой работы.

Более подробно с мерами поддержки и нормативн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энергетики и по телефону горячей линии: 8(4242)670-850.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тридцатый раз стартовал конкурс «Учитель года»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нимают 22 педагога из 14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Это учителя биологии и химии, истории и обществознания,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математики, а также логопеды и психологи. Стаж работы – от 3 до 25 лет.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рафона состоялась 7 сентября в доме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десь прошел концерт, во время которого конкурсантам показали главный приз – хрустального пеликана.

Собравшихся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Ющук и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 Все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успешно прошл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этапы, а это значит, вы уже победители. Каждый из вас профессионал своего дела, талантливый педагог. Я уверен, на конкурсе вы это подтвердите. Желаю всем удачи, а членам жюри – легкого решения,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Ющук.

– Это, безусловно, большой праздник для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В конкурсе участвуют яркие, любящие свое дело педагог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состязание помогает им становиться еще лучше. Коллеги, я желаю вам по-

лучить на конкурсе только положительные эмоции, обрести полезные знакомства, раскрыть свой твор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Удачи всем! – сказа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 этом году выросло количество направлений конкурса. Впервые лучших определяют среди педагогов-дефектологов и педагогов-психологов. Еще одна важ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 больше всего участников среди учителей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и воспитателей дошко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о время очного этапа конкурсанты выступают с мастер-классом перед коллегами, проведут публичную лекцию и поучаствуют в разговоре с министром. Кроме того, в рамка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остязания педагоги и дефектологи организуют открытые уроки и внеуро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Работники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ыступают с учебным занятием и покажут досугов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едагоги-психологи пройду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квест и выполнят практическое задание. Сегодня конкурсанты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 «визитные карточки».

–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оста и развития. Наступившую неделю встречаю с позитивным настроем. Я думаю, что все получится, так как позади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долгой подготовки, – поделилась Елена Уварова, педагог-психолог детского сада «Росинка» села Сокол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Традиционно оценивать конкурсантов будет четыре состава жюри: большое, которое определит лауреатов и победителей, предметно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и ученическое. В состав большого жюри входят специал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профсоюза работников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едметное жюри состоит из педагогов-предметников, победителей и лауреатов конкурса прошлых лет.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жюри – это лауреаты и победители «Учителя года-2019». В состав ученического жюри войдут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которые показывают отличные успехи в учебе, на олимпиадах и конкурсах.

«Учитель года» организуют област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льным центром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В течение долгого времени генеральным партнером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состязания являе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сорциум «Сахалин – 1» в составе компании-оператора проекта «Эксон Нефтегаз Лимитед».

Имена лучших педагогов региона озвучат 11 сентября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конкурса. Абсолютные победители в четырех номинация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финале Всероссийских конкурсо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ансионата для ветеранов в Корсакове идет с опережением сроков

Важный социальный объект возводят по инициатив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ри райо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а средства бюджета области.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строительство здания завершено практически наполовину.

Работы развернулись во 2-ом микрорайоне с июн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Здесь на площади почти в 3 гектара уже видны очертания будущего пансионата. Трехэтажное здание, по своему виду напоминающее круизный лайнер, разделено на два корпуса: жилой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В первом расположатся 40 однокомнатных и 10 двухкомнатных квартир, в которых будет предусмотрено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комфор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люд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пальня, кухня, гостиная, ванная комната, санузел и прихожая. Площадь квартир составит 53 и 77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корпусе разместят медицинский блок с процедурным кабинетом, тренажерным залом и зоной отдыха.

–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с учетом предложен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ри корсаков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щественники обратились с идеей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го учреждения и рекомендовали удел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маломобильным гражданам. Предложение было поддержано и объект вошел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Для жител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физическ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в здани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специальные лифты, а квартиры для них будут расположены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 рассказал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проектной подготовки и организации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Александр Ким.

– Мы очень рады, что общественная инициатива дает реальные и осязаемые результаты. –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тмет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р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Людмила Иванова. – Еще четыре года назад, когда наш совет только был создан, мы наметили для себя направления, по которым четко двигаемся до сих пор.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иде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ансионата нашла поддержку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бласти и сейчас эта работа идет полным ходом.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ансионата предусмотрят прогулочные площадки, озеленение и места отдыха с малыми архитектурными формами.

Как отметил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Глобус-СК» Игорь Борох,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а идет с опережением графика примерно на месяц.

– Сейчас мы одновременно ведем работы сразу по несколь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занимаемся кровлей, устанавливаем внутренние перегородки, подводим наруж-

ные сети отопления, водоснабжения и водоотведения, планируем участок под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 пояснил Игорь Борох.

Ввод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ов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объекта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запланирован в октябре 2022 года.

ПИК построит жилье на Сахали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ПИК подписал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в котором подтвердили намерения по реализации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город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общая площадь жилой застройки составит 800 000 кв.м. Срок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 до 2031 год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базой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компании будут служить как текущие, так и новые строительные мощности в регионе.

– Мы делаем всё, чтоб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была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 местом для жизни, чтобы люди видели для себя перспективы на островах. Обо всем этом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когда решён один из первоочередных вопросов – жилищный, поэтому мы уделяем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у качественного жилья и созданию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Группа «ПИК» обладает очень важной для нас экспертизой – опытом комплексного освоения территорий.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икрорайона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с учетом обеспечения всей необходим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а также отвечать всем требованиям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Мы благодарны руковод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оддержку и помощь в реализации инициатив ПИК в регионе.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очень перспективен для бизнеса, и мы убеждены, что проактивная позиция мест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дальнейшему успешному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оров и достижению всех амбициозных целей. Создание качественной жилой среды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важных факторов для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и поможет не только удержать, но и привлечь людей к переезду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мы приложим все усилия для создания современ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для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и достижения максимального качества нового жилья в наших проектах, – сказал Сергей Гордеев, Президент ПИК.

ПИК – первая компания в России, утвердившая собственные стандарты не только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о и в создании качественной жилой среды: с просторными и светлыми квартирами, безбарьерным пространством,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м. Все принципы ПИК-Стандарта будут сохраняться для проект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днако при этом будут учитываться климатические и сейсм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региона.

Для справки:

ПИК работает на рынке с 1994 года и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проектах в сегменте доступного жилья. С начала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мпания построила более 25 млн м² жилой недвижимости. С 2007 года ПИК присутствует на фондовом рынке. Компания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передов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тандартов корпо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торые способствуют успешному развитию бизнеса. Реш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ПИК включён в перечень системообразую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Более 40 сахалинцев прош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учение благодаря нацпроекту

За счет 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свою квалификацию повысили сотрудники птицефабрики «Островная»,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мунальная компания» и МУП «Городской водоканал».

Обучение проводилось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Складская логистика на предприятии», «Эффект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м участком», «Управление запасами», «Техническ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и ремонт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Эксплуатация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ые системы управления», «Бухгалтерский учет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другим. В качеств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лощадок выступили Учебный центр Сахалинэнерго и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рои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 Повышение квалификации работников – это один из инструментов повышения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труда. Новые компетенции, знания и навыки,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специалисты, позволят им работать на самом современном оборудовании и стать универсальными 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Предприятия за счет этого увеличат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труда,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Ковалева.

Отметим, что в 2020 году обучение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труда и поддержка занятости» пройдут 75 работ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К 2024 году число таких работников должно составить не менее 791 человека.

Кроме того, нацпроект позволит до 90 процентов повысить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ь граждан деятельностью служб занятости. Они должны стать современными кадровыми центрами, а их специалисты – персональными консультантами для каждого, кто обращается в поисках работы.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주 도서관, 한국어 수업 시작

9월초부터 사할린주 일반과학 도서관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애호가 동아리가 3년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이 모임은 사할린 일반과학도서관의 국제협력정보센터에서 <동쪽의 마법>기획 일환으로 이번에 <K-놀이>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담당자인 공 크리스티나에 따르면 동아리의 회원들은 한국의 문화를 알고 싶어하고,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다. 도서관 메일로 70여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회원 수가 한정돼 있어서 25명만 선정했다. 회원들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거나 또는 한국어 초급 수준으로 연령은 15세부터65세까지의 사할린 주민들이다. 이들은 1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한글을 익히며 한국 문화, 전통, 풍습, 한민족 의식 등에 대해 알아보게 된다. 회원 중에 동포도 많고 러시아인도 많은데 비율은 동포 40%, 러시아인 60% 정도다.

현재 한국어 애호가 동아리 회원이 바로 될 수 없지만 도서관을 찾은 사람들은 <한국어 책을 읽자>서적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한국어 교재와 역사, 전통, 문화에 대한 책과 현대 소설이 소개되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주 일반과학 도서관 제공)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발표

시 황연 씨 '왜지나무' 등 6개 부문 34편 선정
수상자 관할공관에서 상금·상패 전수식 개최 예정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총 34편을 코리아넷(www.Korean.net)을 통해 지난 9월 7일 발표했다.

재외동포 문학상은 재외동포들의 한글 문학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59개국에서 총 1천 3백 29편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국내 문단에서 존경받는 문인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성인 부문 대상 수상작으로는 ▲ 시 부문 황연(중국)씨의 '왜지나무', ▲ 단편소설 부문 김수연(캐나다)씨의 '혜선의 집' ▲ 체험수기 부문 김진아(프랑스)씨의 '슬기로운 이방인 생활'이 선정됐다.

또한 청소년 글짓기 부문 최우수상에는 ▲ 중·고등부 김미혜(중국)씨의 '가을비의 사랑법' ▲ 초등부 신율(중국)씨의 '별', 올해 신설된 입양수기 부문 대상에는 ▲ Hana Crisp(호주)씨의 'Mother, Lost and Found'가 수상작으로 확정됐다.

한글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글쓰기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한글학교 특별상'은 ▲ 중국 칭다오한글학교 ▲ 케냐 재케냐한글학교 ▲ 미국 다솜한국학교 ▲ 오스트리아 비엔나한글학교 ▲ 아제르바이잔 바쿠한글학교가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올해는 체험의 치열성이 묻어나는 감동적인 작품들이 많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경험담이 많았다"며, "독자들에게 재외동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우성 이사장은 "특히 올해는 다양한 국가에서 문학성이 뛰어난 주옥같은 작품들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며, "재외동포들의 모국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문학'이라는 창을 통해 잘 전달되도록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자 34명에게는 상패와 100~300만원의 상금이, 한글학교 5곳에는 50~2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각 부문별 수상자 시상식은 거주국 관할공관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앙아시아 온라인 영화주간' 개최

중앙아시아 5개국의 영화 5편을 9월 10일부터 열흘간 네이버TV 통해 소개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 이근) 산하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은 오는 9월 10일부터 열흘간 '2020 중앙아시아 온라인 영화주간'을 개최한다.

한-중앙아시아 문화 교류협력 기반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의 영화 5편을 네이버TV를 통해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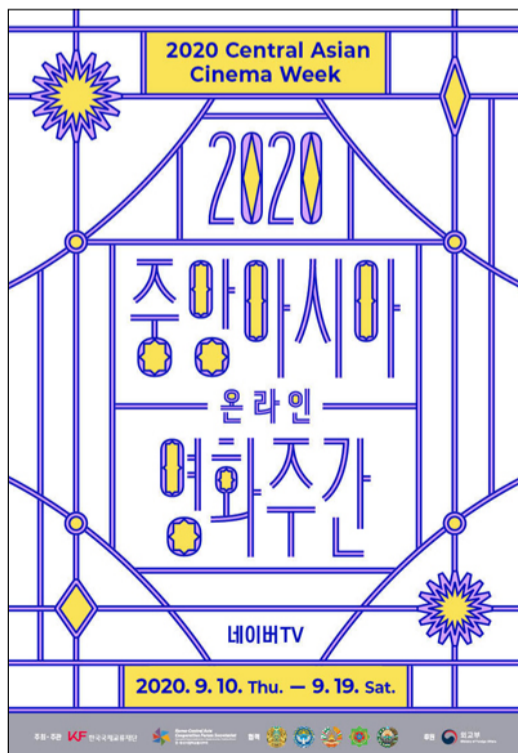
한국 주재 중앙아시아 국가 공관 및 영화 전문가들에 의해 선별된 영화들로, ▲카자흐스탄 영화 <어머니에게 가는 길>(2016, 감독 아칸 사타예프) ▲키르기스스탄 영화 <성스런 나무의 노래>(2018, 아이벡 다이르베코프) ▲타지키스탄 영화 <반사되지 않는 거울>(2013, 노시르 사이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영화 <승마소년과 말>(2016, 감독 케림 아나노프·웨파 이산굴리예프) ▲우즈베키스탄 영화 <갓 구운 빵>(2018, 감독 우미드 캅다모프) 등이다.

아울러 9월 11일 오후 5시 30분에는 서울 종로구 북합문화공간 에무시네마에서 오프라인 상영회가 소규모로 진행된다. 이날 상영회에서는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자 월드프리미어로 상영된 카자흐스탄 영화 <말도둑들. 시간의 길>(2019년작, 감독 예를란 누르무캄베토프·리사 타케바)을 선보인다.

영화 상영 후에는 김영중 중앙아시아학회 초대이사, 김상철 한국외대 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심효은 아시아문화원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중앙아시아. 그 시간의 길'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오프라인 상영회 참가 신청은 사무국 홈페이지(www.centralasia-korea.org) 또는 영화주간 홈페이지(www.cacw.co.kr)를 통해 하면 된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2개관에서 각각 10명씩 총 20명의 관객만이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행사가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상기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신문)



2020 중앙아시아 온라인 영화주간 포스터 (사진 KF)

[우리말로 깨닫다]

오 이야기

'오'는 입술이 모아지는 음입니다. 입술이 앞으로 밀려나오는 모습입니다. 입술을 동그랗게 하는 음이어서 원순모음(圓脣母音)이라고 합니다. 밝은 모음이어서 감탄사로 표현하면 기분이 좋거나 칭찬의 느낌을 줍니다. '오!'의 느낌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우' 역시 입술이 앞으로 나오는 음이지만 무거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감탄사로 '우!'를 표현하면 주로 불만이나 야유를 나타냅니다. 주로 저음(低音)으로 표현합니다. 무겁게 발음하는 겁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오'의 글자를 보면 오가 보여준 느낌을 글자에 그대로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글자는 땅을 나타내는 '오'에 아래아를 더한 글자입니다. 즉, 땅 위에 하늘이 있는 것으로 해가 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와의 차이는 오의 경우는 해가 위로 뜬다는 점입니다. 이는 동쪽에서 뜨는 것인데 말입니다. 태양이 위로 뜬다는 점에서 입을 모으고 위로 벌리는 느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양성 모음이라도 글자에 느낌을 담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아와 오를 설명할 때 이렇게 글자의 느낌도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오는 해가 뜨는 모양을 글자에 표현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따뜻한 느낌도 있습니다. 계절 중에서 '봄'에 오가 들어가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같은 입김이라도 '호'와 '후'의 느낌이 다릅니다. '호~'라고 하면 따뜻한 온도가 느껴집니다. 따뜻한 입김입니다. 아가의 상처에 엄마가 붙어주는 바람, 얼어붙은 아이 손에 부는 입김이기에 온도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부는 것을 '호호'라고도 합니다. '호호'는 엄마의 웃음소리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아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병이 다 나았을 때 기뻐하는 엄마의 웃음소리가 떠오릅니다. 호호는 행복한 기억이고, 호호는 행복한 마음입니다.

해가 뜨는 것이니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첫음절에 '오'가 들어가는 순우리말 단어 중에는 상승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어휘가 많습니다. '오르다, 솟다, 돌다' 등의 어휘가 전부 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솟아오르고, 돌아옵니다. 오가 들어감으로써 움직이는 방향을 명확히 하는 느낌입니다. 모음 글자를 볼 때 점의 위치와 방향을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오는 원순모음이어서 원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라고 발음을 하면 왠지 눈도 동그랗게 뜨게 됩니다. 약간은 놀라는 느낌을 줍니다. 눈도 동그랗게 뜨고, 입도 동그랗게 벌리고 있으니 놀란 모습이기도 한데, 재미있는 느낌입니다. 알파벳에서도 'O'는 동그라미로 표현합니다. 입을 동그랗게 하고 내는 소리이기도 동그라미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동그라미를 목구멍의 모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응(ㅇ)이라는 글자입니다. 텅 비어있는 느낌을 표현한 겁니다. 같은 동그라미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말에서도 '오'는 입모양에서부터 동그란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글자가 아니라 소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동그랗다'라는 단어에 오가 들어있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동그랗다'라고 발음을 하려면 입을 동그랗게 해야 하는 겁니다. '돌다'라는 단어에도 오가 들어갑니다. 원을 만들며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김밥을 '돌돌' 마는 것에도 오가 들어가네요.

오의 글자는 태양이 떠오르는 밝고 따뜻한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승의 이미지도 표현합니다. 오의 소리는 동그란 입을 통해서 나오기에 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의 글자와 소리의 미묘한 조화에 감탄하게 됩니다. 한글 모음 글자의 매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В прошлом году Samsung Electronics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по объёму продаж в России мобильных телефонов, а по объёмам продаж автомобилей и бытовой электроники Hyundai Motor Group и LG Electronics заняли вторые места.

В перспективе Россия рассчитывает на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м регионом, а РК надеется на обеспечение энергоресурсами и выход на евразийский рынок, поэтому взаимные интересы совпадают. «Если будут реализованы такие проекты в сфере энергетики и логистики как прокладка газопровода, электросетей и организация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сообщения, это даст взаимовыгодные результаты» -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и.

신화적, 현실적 체호브에 대해 사할린 주민들에게 소개

〈모두 거짓말을 한다. : 현대인의 추억 속에 안톤 체호브〉연구 전시회가 9월4일 17시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는 블라디미르 달리 러시아 국립 문학사 박물관에서 개최되어 2016년에는 모스크바에 있는 '체호브 자택 박물관'에서 전시되었다.

사할린에서는 〈문화〉 국민기획의 일환으로 전시회를 연다.

방문객과 내빈은 안톤 체호브에 대한 총체적인 추억을 떠올리게 될 거라 전망한다.

기본적으로 이 전시회는 추억의 특성과 위대한 인물의 신화적, 실제적

모습, 2차 자료인 회고록 속 허구와 사실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전람회에서는 연속 풍자 만화와 희화화, 사진, 문서, 편지 등을 전시한다.

작가 사후 즉시 출판된 작품 속에는 많은 회상들이 나타나 있고 그 안에는 놀라운 모순들이 녹아 있다. 이런 기억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사람이자 작가로서 체호브에 대해 좀더 생생한 표현들을 구성하도록 했다고 박물관 홍보부가 전했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реальным и мифологическим Чеховым

Выставка-исследование "Врут все: А. П. Чехов в воспоминаниях современников" откроется в музее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14 сентября в 17:00. Она была создана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музее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мени В. Даля и представлена в "Доме-музее А. П. Чехова" в Москве в 2016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её покажут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а".

Гости и жители погрузятся в целый комплекс воспоминаний об А. П. Чехове. В основе выставки лежит желание поговорить о свойствах памяти, о реальном и мифологическом образе знаменитого человека, о фактах и вымыслах в источниках второго ряда — мемуарах.

В экспозиции представят серию карикатур и шаржей, фотографии, документы и письменные источники. Многие воспоминания появились в печати сразу после смерти писателя и таят в себе удивительные противоречия. Разнообразие точек зрения этих воспоминаний послужило составлением более живого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Чехове — писателе и человеке,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узея.

(사할린주, 한국 언론기관 자료에서)

Женщина 68 лет, проживающая в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знакомится с мужчиной 1944-1945 г.р. и старше, для выезда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Тел: 89242804045.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거주하는 68세의 동포 여성이 영주 귀국을 위해 1944-1945년생, 또는 그 이전 출생의 남성과 만남을 원함.

전화 89242804045.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SAKH.COM • БИЛЕТЫ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сах.ком**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